

원불교 대각개교절 봉축 메시지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뜻 깊은 날입니다. '원불교 열린 날, 대각개교절' 을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원불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는 말씀대로 정신과 물질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생활종교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특히 종교 간의 대화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화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각개교절에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보다 경쟁력 있고 넉넉한 나라,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선제적인 복지투자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같은 미래 불안요인에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변화를 제때 이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신뢰와 통합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온 원불교가 이러한 일에 계속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사회’를 이 땅에 구현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각개교절을 봉축드리며, 여러분 모두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